

세계 각국의 상상 초월 신개념 아파트

‘자동차용 엘리베이터를 이용, 자신이 살고 있는 층으로 차에 탄 채 올라가 현관 앞에 주차한다’, ‘버튼 한 번으로 집안은 필드로 바뀌고 골프 연습을 한다’

영국의 유명 첩보 영화 ‘007시리즈’가 아니라 현실이다. 아파트는 더 이상 ‘편리함’이나 ‘주거’ 개념이 아니다. 아파트는 ‘오락’과 ‘휴식’의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천문학적 비용이 문제지 자신이 원하는 기능은 거의 무엇이든 가능하다. 집에 아프리카 밀림의 야생동물들을 잡아다 세렝게티 초원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다.

세계의 유명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부자들이 집 안에서 엔터테인먼트, 휴식, 체육 등 모든 것을 즐기고자 한다고 말한다. 알렌 골드만 SJP 레지덴셜 프라퍼티 대표는 이를 두고 “그들은 라이프스타일을 사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블룸버그통신은 25일 세계 각국에 있는 고급 아파트의 일면을 소개했다. 상상을 뛰어 넘는 비용은 기본이고, 상상을 초월한 인간의 상상력은 더욱 놀라울 따름이다.

세계의 유명한 경치 감상 가능한 아파트

중동 두바이의 한 아파트에서는 세계의 모든 유명 경치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버튼만 누르면 완벽에 가까운 조경이 창문에 펼쳐진다. 방과 거실 부엌은 360도 회전이 가능하다. ‘지구는 돈다’는 진리를 체험하기 딱 좋은 아파트. 24층 높이로 2009년 완공 예정. 가격은 비교적 저렴(?)한 250만달러(25억원).

자동차용 엘리베이터를 갖춘 아파트

미국 맨해튼 11번가에는 자동차용 엘리베이터를 갖



▲방의 거울에 첨단 디지털 카메라가 설치된 아파트

춘 고급 아파트가 있다. 이곳 주민들은 차량 도난을 걱정할 일이 없다. 5층에 있는 자신의 현관문 앞에 차를 주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비용이 약간(?) 비싸게 흠이다. 이곳 주민들처럼 차량 도난 걱정 없이 사는데 드는 비용은 1600만달러.

거울에 카메라가 설치된 아파트

영국 런던에 패션 모델들이 좋아할 만한 아파트가 있다. 나이트브릿지 소재의 이 아파트에는 방의 거울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방에 첨단 디지털카메라가 설치된 것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사람이 옷을 입고 외출 준비를 하는 동안 카메라는 자동으로 셔터를 누르고 저장한다. 외출 할 때 무슨 옷을 입고 나갈지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안성맞춤이다. 가격은 1200만파운드(2380만달러).

레저시설을 갖춘 아파트

뉴욕 맨해튼 8번가의 한 아파트. 당구실, 사우나실, 요가실과 심지어 골프 시뮬레이터실을 갖추고 있다. 골프 시뮬레이터실이 단연 압권. 방에 DVD플레이어가 설치돼 있고 세인트 앤드류 같은 유명 골프코스를 3차

원으로 제공한다. 샷을 하면 레이저가 공의 움직임을 쫓아가며 실제 필드에서 칠 경우 어떤 경로로 어디에 떨어질지 표시해 준다. 이런 아파트는 꽤 비싸다. 7500만달러.

부동산 개발업체 영 우 디벨롭먼트의 대표인 영우는 “이런 개념의 아파트는 미친 생각이지만 동시에 훌륭한 생각”이라며 “이런 곳에 사는 것은 자신감을 갖게 해준다”고 말한다.

부동산 감정회사 밀러 사무엘의 조나단 밀러 대표는 “새로운 고급 아파트들은 엄청난 프리미엄”이라며 “뉴욕에서 주로 이런 곳에 사는 부류는 월가의 금융인, 유명 연예인, 헤지펀드매니저들”이라고 귀띔했다.

도널드 트럼프와 미키 나프탈리를 비롯한 미국의 유명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아파트 편의 시설을 단계적으로 늘려 왔다. 심부름용 BMW 서비스를 제공하고 24시간 레스토랑 서비스도 가능하다. 심지어 수중에서 수영을 하며 음악을 들을 수도 있다.

부자들의 행동을 연구해온 크리스토퍼 캐롤 존스홉킨스대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터무니없을 법한 아파트는 편안함 보다는 사회적 위치와 보다 연관성이 높다”며 “최고 수준의 부자들은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타인에게 뽐낼 수 있다는 데서 쾌락을 얻는다”고 분석한다.

세계에서 가장 불편한 아파트

세계에서 가장 불편한 아파트는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본 출신 예술가 겸 건축가인 아라카와 슈사쿠와 그의 동료 매들린 긴즈가 기획하여 일본 도쿄 미타가에 세운 신개념 아파트로 꼽히고 있다.

이들 예술가의 건축 이념은 “죽음에 맞서는 집”.

인간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건축의 컨셉인 것.



▲일본 도쿄 미타카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불편한 아파트

오래 살기 위해서는 불편해야 한다고 예술가들은 믿고 있다. 그래서 '생명 연장의 아파트'는 세계에서 가장 불편한 아파트이다.

아파트는 좁다. 천장도 낮다. 잘못하면 머리를 찧을 우려가 있다. 또 바닥을 울퉁불퉁하고 움푹 꺼져있고 급하게 경사져 있다. 조심조심 걸어도 넘어지기 십상이다.

베란다로 나가는 창문은 좁아 기어나가야 한다. 옷장 등 수납공간도 없다.

입주자는 자신이 궁리를 해서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이 좁은 아파트는 입주자를 괴롭히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주택은 헬렌 켈러를 추모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예술가들은 갖은 역경에 맞서 장애를 극복한 헬렌 켈러가 그랬던 것처럼, 보통 사람들도 극심한 불편을 겪고 오감을 자극하는 환경 속에 살아야 면역 능력이 높아지고 따라서 수명도 훨씬 길어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뒤집으면 편안한 집에서 '늘어져' 살면 그만큼 몸도 정신도 쇠약해 진다는 말이다.

이 아파트는 일본 최대 건설사인 다케나카 건설이 9채를 지었는데 분양가는 주변 아파트 시세의 2배에 달하는 7억 5천만원 선이었다.☺